

오륙도 칼럼



김 달 현

남구를 품고 있는 황령산은 오색 단풍으로 한창이고 동리마다 거리에도 노랗게 빨갛게 온통 단풍으로 가득하다. 넓게 펼쳐있는 앞 바다 에메랄드 물빛이 싱그러움을 자랑 하면 거기에 뒤질세라 거리에는 가을 색으로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물결이 더하여 늦가을풍경은 절정을 이룬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가을을 타고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고 걷

고 싶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진다. 그리고 한 해의 일들, 못 다한 공부도 더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올가을을 맞고 보니 야학에 나와 봉사한지도 벌써 40여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버려 '살 같은 세월'이란 말이 실감난다.

30대 젊은 시절 70년대 가을 어느 날 학생 생활지도자 대연지구 군·경, 교사 합동교외 지도 나갔던 적이 있다. 그때 우연히 지금의 대연성당 자리에 설치된 작은 천막 안에서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한 경찰관이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경찰관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을

청소년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중등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그 설명을 듣고 바로 출강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금까지 남부중·고등학교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다.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사항들, 끼니문제 해결 때문에 취직도 시켜 주어야 하고 저녁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자비로 빵도 많이 사들고 들어왔다. 돌아보면 지난시절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요즘을 가끔 시내에서 졸업생들을 만난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의젓한 중년의 사회인공들이 되어 국내외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한없는 보람을 느꼈다.

일상에서도 어려울 때는 야학에서 배운 시대를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재자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그들이 대접하는 차한 잔은 왜 그리도 맛이 남다른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당시에 가장 인상에 남는 사실이 있다면 어떤 학생들은 낮에는 구두 닦이로, 가정부나 사환으로 일하다가 저녁수업에 나와 잠이 올 때는 눈을 비비면서 연필로 손등을 푹꾹 찔러가면서 새까만 눈으로 집중 하려던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들 중에는 박사, 교사, 경찰, 실업가, 고급공무원 등으로 사회각처

에서 중추적인 일꾼들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세월이 흘러 90년 이후에는 국가경제가 좋아지고 국민소득이 향상되기 시작하자 청소년들은 모두 진학하고 서서히 장년 교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진학 못한 장년들의 배움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 장년학생들도 역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나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모두들 피곤함을 참고 잠과 싸워가면서 각오가 대단하다. 이들은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늦어도 2년 내에 끝내고 검정고시에 거의 합격한다. 이 만 학도 들이 검정고시 합격 증서를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

소연이다.

이곳은 주택가로서 매일 갈 곳이 없어 길가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을 보다 못한 주민 황치일씨가 자기 집 아래채 작은방 한 칸을 사용케 해 현재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웃 어르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은 늦게 오는 분들은 방에 들어 갈 수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이 많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아쉽고 측은해 보이기가까지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이웃에 빈집이 있어 이곳을 수리해 경로당으로 사용키로 했다. 여기서 경로당 운영 개설에 따른 허가와 추진절차 또는 진행순서가 궁금하다. 주민들의 숙원인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왕판호(문현1동)

체육시설 설치에 감사

직업상 늘 고정된 자세와 운동 부족으로 아침에 눈을 뜰때면 어깨부터 팔까지 근육통으로 고통을 받았다.

공원내 애완견 동반시 출입요령, 이륜차 진입금지, 취사행위금지 등 공원 내 공공도덕 준수를 위해 현수막 게시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게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시 지역경제과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의재 (지역경제과)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무분별한 풍선광고 단속을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 언제부턴가 웬만한 상점, 특히 유유포스 주변에는 풍선광고 간판이 우후죽순처럼 서있는걸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손님을 끌기에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풍선광고 간판은 일소가 영업을 하는 야간이던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해 보행자나 차량안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전기시설로 공기를 불어넣는데다, 풍선 속에는 조망기구까지 설치돼 있어 항상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도 커 보인다.

업주들이 풍선광고 간판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설치에 따른 규제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듯 하다. 그러다 보니 풍선광고 간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길거리를 지나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장난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또 그 전선을 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봤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풍선광고 간판에 대한 법규를 지키고 그제 잘 안될 경우 적절히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

남인배(감만1동)

경로당 설립 협조를

문현1동 39번지 주변의 김영숙 할머니 등 25명은 경로당을 갖는 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단속 실시

장래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해달라는 우임2동 우윤숙님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 시설물(아파트, 대형마트, 관공서)관리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관내 주차가능표지 발급자 전원(5,981명)에게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

만 제보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자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혜(주민복지과)

쾌적한 공원만들기 노력

평화공원에 공공도덕 준수에 대한 대연1동 곡윤숙님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사에 지킬 것이 무엇이라서 위엄이 서렸을까.

우리나라의 산사마다 이름난 은행나무 노거수들이 무수하다. 그들에게서는 나뭇대로의 전설이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더니 싹을 틔워 지금껏 살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용문사 은행나무에서도 신령한 기운이 느껴졌다. 강화도 보문사의 은행나무 또한 말로 설명하지 못할 그 무엇이 느껴지기도 했다. 갯바람과 당당하게 맞서며 지켜야 할 회두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다. 무례하게 노스님을 안아보듯 나무를 안아봤다. 노스님의 뜻

을 속인 내가 어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을 따라 나도 삼배를 하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몇 백 년을 이고 있었을 하늘이었다. 햇살과 바람이 영겁의 세월을 지나왔을 것이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것이 은행나무다. 은행나무가 장구한 세월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나무 안에 깃든 혼령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노랑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나면 삭막한 겨울이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은행잎으로 인해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노란 카펫이 깔린 길을 걷는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노란 은행잎이 있다.

수필가·문현3동

신선대

<166>



이런 운동기구들이 설치돼 나같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관호(감만2동)

■ 나의 생각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점



김 장 수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어 우리들 곁에서 울고 웃는 지가 어언 30년이 지났다.

1977년 처음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1989년부터 드디어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전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로 발돋움의 시발점이 되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간의 노력과 우여곡절이 무척이나 많았다. 30년의 피파 흘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의 위상에 맞는 복지체계가 갖추어 지고 전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졌다는 실마리가 고무되거나 기뻐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득비례 보험료 부담률은 5%(세대당 65,000원) 정도이다. 이것은 OECD 가입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10% 수준이며, 대만은 8.5%이다.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니 본인부담율도 낮은 편이고, 보장성 또한 OECD 평균 80% 정도로 높아 민영의료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담률도 적고 보장율도 64%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민영보험사와 납입금대비 지급률을 비교하면 민영보험사가 60% 정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4%로 월등히 높다.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은 공보합제도가 없는 철저한 민영의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GDP 대비 15.6%이다. OECD 평균이 10%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GDP 대비 6.4%이다. 미국이 높은 부담률 때문에 전체 국민의 약 15%가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비율은 우리나라 국민과 맞먹는 4천 700만 명에 이른다.

클린턴대통령 재임시절에 미국 민영의료보험을 개혁하고자 했으나 민영의료보험사의 로비로 유야무야되었다. 현재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영의료보험을 공보합화 시키고자 미의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기에 위험 집병에 있는 가입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보상질 환분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점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아울러 치료비용이 고액이라 돈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을 8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면 민영의료보험은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은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정착되었으며 현재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장

■ 살며 생각하며

노란 은행잎



박 봉 석

바람이 세차게 분다. 만추의 은행잎이 노랗바비가 되어 팔랑인다. 노랗바비는 파란 하늘에 금싸라기가 되어 반짝거린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자 거리는 노란 등불을 켜놓은 듯이 환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노란등불은 점점 짙어져만 갔다. 사람들의 표정 또한 노란 은행잎을 닮아 환하게 밝아졌다. 도심에서 만추임을 실감케 하는 것이 노란 은행잎보다 사실적인 것이 또 있을까. 노란 은행잎은 성철의 계절인 가을을 비로소 완성시킨다.

노란 은행잎이 나뭇나뭇 떨어져 내리는 거리를 상념에 빠져 걷는 사람을 보면 아름다워 보인다. 걷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폭의 수채화가 된다. 걷는 자신도 모르게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아는 이든, 모르는 이든, 노란 은행잎 가로수 길에서는 그 주인공의 등은 웬지 연민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 뒤를 말없이 따라 걷고 싶을 때도 있다.

그길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불현듯 생각나거나 그리워 고개를 숙이게 된다. 웃음을 머미게 되고 잊었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한다. 그 길 위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눈길을 걷듯 조심스럽게만 다닌다.

노란 은행잎에는 갈래머리시절의 웃음과 한숨소리가 들어있다. 은행잎을 주위 두꺼운 사선이나 채갈피에 끼웠다가 외우고 다니는 시를 적어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앨범에 끼웠다가 두고두고

꺼내봤던 기억이 난다.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로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말을 유치하게 적기도 했다. 그때는 그것이 낭만이었다. 지금의 여고생들은 그런 낭만보다는 속도가 빠른 문자메시지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것이다.

뜬 날 때마다 나는 고즈넉한 산사를 자주 찾는 편이다. 불자로 사 산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산할 때 저절로 향하게 된다. 청량한 공기와 해맑은 바람이 모인 산사. 점점산중의 산사는 번잡하지 않아서인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불심이 깃든 거울이 있는지 돌아올 때면 마음도 몸도 한층 가벼워져 있음을 느낀다.

연젠가 청도 적전사를 찾았을 때이다. 두매산들의 조용한 산사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놀랍다기보다 충격이었다. 주위의 모든 색들이 퇴색된 산사에 노란 꽃불을 켜 든 은행나무 노거수의 당당함과 신령스러움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고요하고 적막한 산

